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 선 광 의원



“중구 원도심을 젊음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특구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준비상황 점검
및 성공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문·일답)입니다.

김 선 광 의 원

국민의힘 중구 태평1·2동, 오류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지역구를 둔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쇠퇴된 원도심지역의 젊음의 문화예술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첫 번째 시정질문은 시장께 전하는 질문이므로 시간관계상 빠르게 제안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지역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옛 충남도청 일원이 도시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화구역은 창업공간 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 기업의 입주나 창업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앞으로 옛 충남도청 인근 지역은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구는 전통적으로 대전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의 면모가 더해지고 이러한 기세를 모아 원도심지역인 중구를 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관광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민들 욕구가 높으며,

최근에는 은행동 으능정이 인근이 젊음의 거리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일대를 젊은이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젊음의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 시는 토토즐 페스티벌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토토즐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했던 대전 방문의 해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으능정이 스카이라드 일대를 중심으로 EDM 공연과 드론라이트쇼 등을 선보이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한때 대전의 대표 야간 축제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방문의 해 첫해인 2019년 당시 1년 반짝 효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경제효과는 빛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감한 폐지와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토토즐을 없애는 대신 오는 10월 7일부터 4일간 대전0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행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할 것을 선언한 0시 축제의 전초전 격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다만 4일만 개최되는 점에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는 토토즐의 효과를 뛰어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김선광 의원님께서 중구 원도심의 젊은 문화예술특구 지정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원도심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토토즐 축제가 주말마다 있었습시다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기에는 지금 원도심 전체에 대한 새로운 부흥이나 발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내년을 대비해서 토토즐

행사를 집중해서 사전에 개최를 해보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광복절 전후 한 일주일을 대전0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경제활성화형 축제고 하나는 주민화합형 축제인데 주민화합형 축제는 각 동별로 주민들 화합도 하고 그런 행사가 상당히 효과도 있지만 사실상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적인 축제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0시 축제는 대규모 예산도 투입하겠습시다만 대전역에서 과거 도청 사이 1km를 일주일간 도로를 차단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향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쓰면 시민들은 500억의 수익과 효과가 최소한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가 100억을 쓰면 1,000억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대전의 문화예술 전체에,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대전역 중심으로 중앙시장, 나아가서 한의약거리, 으능정이거리 또 중구에 과거 동양백화점 뒤에 있던 뉴코아백화점 뒤에 있는, 요즘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곳 그리고 과거 중구청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축제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보다 새로운 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모델은 사실상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은 축제로 가는데 콘텐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최종 목표는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선광 의원님하고 제 생각이 비슷할 것 같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획기적인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예,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공감해주신 답변 감사드리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은행교에서 대전천변의 중교로, 우리들공원까지 연결되는 중구의 중심지를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고 이것을 젊음의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곳이 마포구 홍대 일대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지난해 홍대 일대가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로 지정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 **김선광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 마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구는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특례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있기까지 마포구는 관광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대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저는 우리 대전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사례를 참고하여서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 일원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여 젊음의 거리로 적극 개발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장우 시장님께서 항상 우리 대전이 지방이 아닌 수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전은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을 서울보다 불러 모으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도심지역인 중구는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될 만큼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을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의 실행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매력을 배가시키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지역은 갤러리와 소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이곳을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하여서 젊음과 예술 콘텐츠를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도 김선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특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근대건축유산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 순으로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최단기간에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반드시 보존해야 될 건축물 이런 것들은 대전시가 매입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철거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하더라도 더 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건축물까지 다 헐어내는 것은 이 도시의 장기적인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히 중구, 동구 일원에 걸쳐있는 과거 건축물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존할 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문화예술특구와 관련해서 저희는 근대문화예술특구가 2017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년간 545억을 투입했고요, 또 21개 사업 중에 커피브리지 관광활성화 사업,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도 사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토즐 페스티벌이나 근대문화스토리투어 등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스카이라드도 이미 염홍철 시장님 때 건설했는데 콘텐츠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스카이라드 천장을 쳐다보는 일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시설 현대화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새롭게 입히는 작업을 새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도 이은권 전 의원께서 구청장 때 우리들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야외공연장 그리고 실내공연장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때로는 리모델링, 나아가서 시설 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계절 문화예술이 전 대전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의원님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특구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곳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도 더 개발하고 예산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현재 운영 중인 세부사업들을 추가로 보완하여서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원도심은 야간 공동화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동 일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중심을 사계절 멈추지 않는 젊음의 문화특구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적극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UCLG 총회는 전임 시장께서 지난 2019년 11월에 유치하였고 현 이장우 시장께서는 취임한 지 약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므로 과거 진행되었던 진행현황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UCLG 총회 총괄을 맡고 계신 기획조정실 유득원 실장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UCLG 총회는 아시다시피 올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관, 제2전시관에서 국비 20억과 시비 57억을 투입한 총 7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개최될 예정인데요.

전임 시장께서는 유치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140개국 1,000개 도시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93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홍보한 바 있고 현재도 기존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남짓 기간이 남은 현 시점에서 이번 대전 UCLG 총회에 참가 신청한 참가국가, 참가도시, 참가인원에 대해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김선광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UCLG 참가신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온라인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기준으로 97개국 279개 도시 1,7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는 250개 도시 775명 그리고 국내는 29개 도시 946명이 사전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대규모 행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과대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참가국은 최초 예상의 약 68%이고 참가도시는 27%, 참가인원은 33% 수준이며 현재 참가인원의 내국인 비율은 전체의 약 56%로 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액수에 비하면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한 동네행사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실장께서는 총회 한 달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예상한 참가인원보다 매우 저조한 참가인원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김선광 의원님께서 참가인원의 저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되는데요, 다만 참가인원의 저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 재확산이라든가 중국 측에서 해외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7일 기준으로 해서 97개국 279개 도시 1,7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참가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5일에 우리 대전의 국제관계대사가 UCLG 세계사무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에밀리아 사무총장을 만나서 비록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24만 UCLG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참여의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UCLG 세계사무국과 ASPAC 주요지부와 함께 많은 회원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실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결국 사무국의 비협조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 코로나 문제 등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해외홍보 및 유치활동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UCLG 총회 유치 이후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대전시의 해외홍보·유치활동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동안 저희들이 UCLG 세계사무국과 함께 그리고 ASPAC지부, 유럽지부 7개 지부와 적극적으로 UCLG 참여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은 물론이고 주한 외국공관과 함께 많은 회원도시들에.

❖ **김선광 의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이 많아서 그냥 “몇 회를 했다.”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다각적으로, 일일이 횟수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각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UCLG 총회 홍보를 위해 대전시 직원의 해외유치활동은 2019년, 2020년에는 전무하였으며, 2021년에 1회, 2022년에 3회 총 4회 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외출장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여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동년 3월부터 8월까지 또한 이메일로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외출장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발 빠르게 계획하여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도 각국에 이메일 발송 및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해외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만 꼭 대면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적인 해외유치활동 방법을 고안해서 적극 반영 추진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UCLG 총회 개최로 지역의 경제 기대효과를 460억 이상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소득·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 정확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외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UCLG 준비상황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UCLG 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세계의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UCLG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19년 11월에 여가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384억 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가 76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앞 화면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지난달 4일 KBS에서는 UCLG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총편익 285억 원으로 추산하고 순가치는 225억 원으로 집계된다고 대전시가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그러면 대전시는 민간업체인 여가공간연구소의 자료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 둘 중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실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기관의 연구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은 UCLG 세계총회를 우리가 어떻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선광 의원** 실장님, 제가 앞서 진행된 바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나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확대 포장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발표하셨던 UCLG에 대해서는요.

지역의 숙박업소, 식당 등 많은 소상공인께서도 UCLG 총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시점과 같은 참가인원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UCLG 총회 유치 당시 언론 보도내용을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가 세계 우수도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러면서 전임 시장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되었다며 언론보도로 성과를 보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전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대전시가 여러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때 언론보도 일부에서는 경쟁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3개 도시하고 경쟁을 했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 **김선광 의원** 결국은 우리 대전시의 단독신청 아니었습니까?

실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우리 시는 경쟁상대도 모르고 유치활동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행사를 그렇게 유치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대전시가 단독후보임을 알고도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유치총력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전시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본 의원 또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굳이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서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거짓된 포장이 없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CLG 총회 홈페이지입니다.

실장께서는 UCLG 총회 홈페이지가 언제 오픈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

❖ **김선광 의원** 잘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UCLG 총회 홈페이지는 2022년 6월 27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UCLG 총회 유치는 2019년 11월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홈페이지조차 개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CLG 홍보와 관련된 전권은 UCLG 세계사무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CLG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는 UCLG 세계사무국과 공식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연계행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사내용들이 합의가 되어야만 그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UCLG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기간이 지연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개설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김선광 의원** 실장님, 대전 UCLG 총회를 사무국이 있는 해외에서 합니까, 대전에서 합니까?

대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참가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객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무국이 협조를 안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늦장대응과 늦장홍보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참여도시 및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시장님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한글의 영어번역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님과 아르헨티나 현지인께 의뢰하여 피드백 받은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인사말 부분 이외에도 전체적인 홈페이지 영어번역이 부분부분 잘못되었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잘못된 표기라고 합니다.

국제행사임에도 영어번역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 또한 대전시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사하셔서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이어서 UCLG 총회 홍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전 시내에 UCLG 총회를 홍보하는 현수막과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매체를 통한 홍보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전 UCLG 총회는 국제행사입니다.

현재까지 국내·국외를 포함한 홍보현황에 대하여 홍보를 시작한 시점과 집행된 비용, 특히 해외홍보 진행된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1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UCLG 대전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UCLG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UCLG 대전 세계총회에 대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홍보활동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전 UCLG 총회는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해외참가자를 모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전시의 해외홍보활동 부족의 결과로 현재의 해외참가국, 참가도시, 참가인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행사처럼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잘못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께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7월 2026 세계태양광총회를 유치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대전 UCLG 총회의 미비한 해외홍보활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해외홍보방안에 대해 적극 재검토하여 추후 국제행사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대전 UCLG 총회 행사준비 대행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PCO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 **김선광 의원** 선정된 업체명과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총괄대행사로 PCO 이즈피엠피가 선정됐고요, 계약금액은 약 3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진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대신 평양의 지도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2015 세계물포럼 개막식 당시 자격루 붕괴사고로 각국 정상과 다수의 고위급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영상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2건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진행한 행사대행업체는 앞서 질문에 답변하신 대전 UCLG 총회 행사대행 선정업체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망신을 준 업체인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번 행사대행업체가 UCLG 총회에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총괄대행사 선정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선정된 이후에 의원님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세계물포럼 개최식과 2021년도에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때 이즈피엠피가 실수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위 차원에서는 이즈피엠피의 그런 실수를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이번 대전 총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일일이 저희들이 다 체크하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요, 용역 중앙조달 의뢰 시에는 과거 사고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은 첨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제회의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조달청에 올릴 때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과거 사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 첨부하였다면 이러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꼼꼼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UCLG 총회에서는 과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사고가 없도록 주최 측에서 행사진행 대행업체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아울러 모든 국제행사를 유치하기까지는 전문가들과 주최 측과 함께하는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전 UCLG 총회를 위해서 전문가그룹과 자문회의는 몇 차례 진행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희들이 UCLG 조직위 차원에서 각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문회의 개최한 현황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UCLG 총회는 대전 트랙 이런 부분처럼 홍보 분야, 트랙 분야, 섹션별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는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회의입니다.

결국 2022년 1월에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 시에 전문자문단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자문회의를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UCLG 총회를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 시점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초 계획된 참가인원 및 경제 기대효과 등은 우리 대전시가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장께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전 UCLG 총회를 위한 대전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석률 저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의 재확산이라든가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UCLG 조직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홍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UCLG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대전이라는 과학도시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안전한 행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테러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원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4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 트랙을 별도로 UCLG 세계사무국과 협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과학수도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광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지나온 진행상황에 대하여만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로 수고해주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4일 기준 33개국 66개 도시 156명에 불과하던 참가가 9월 5일 기준 95개국 269개 도시 1,667명이라는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UCLG 세계회장에도 도전합니다.

시장님의 도전은 UCLG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UCLG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더 분발하여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개막식 등에 모셔 대회의 격을 높이고 참가에 망설이던 도시들의 참가를 독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서 짧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유치활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전 UCLG 총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6 세계태양광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UCLG는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UCLG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내실 있는 준비와 함께 훌륭한 행사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LG를 마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서 우리의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전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